

[종합·해설]

무안 찾은盧대통령 “서남권 개발 레일 깔겠다”



29일 무안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서남권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목포~대불산단 삼학대교 조기 착공”

국비 2,000억원 투입...2008년 공사 착수

목포 신항·무안공항 활주로 확장도 지원

노 대통령이 29일 마음먹고 전남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왔다. 비록 임기 말에 내놓은 선물들이어서 임기내에 해결을 볼 시간이 촉박하다는 염려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29일 무안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약속한 여러 사업들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고 서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 간척지 문제 해결되나=이날 노 대통령이 준 가장 큰 선물 보따리는 J프로젝트 사업부지인 간척지 양도·양수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농림부 등 관련부처에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타당성을 제시하면 토지를 넘겨주거나, 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부지 확보로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J프로젝트에 큰 충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서남권 발전 구상 보고회에서 낙후지역의 토지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데 이어 두 번째 나온 것. 따라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실렸다는 점에서 J프로젝트에 추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대 사업부지 2천942만 평(간척지 2천226만평, 육지 716만평)은 농림부장관 면허로 한국농촌공사가 매입해 농림부 소유 상태다. 전남도는 J프로젝트 입안 단계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간척지를 무상양도 또는 매입시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장기저리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소유자인 농림부는 무상 양도·양수는 불가능하며, 기업도 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후 사업시행자에게 감

“굳었던 마음 확 풀렸다”

노 대통령 ‘임기 발언’ 하루만에 국정수행 강한 의지

임기 단축 및 당적 포기 시사 발언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무안기업도시 현장과 목포대를 방문하면서 국정수행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자문자답식으로 “노무현, 당신 임기 얼마 안남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군에서도, 도에서도, 일반 국민도 힘을 모아 쭉 되게 해주시면 적어

것 같고 고향에 온 것 같은 포근한 느낌을 받는다”며 “굳어있던 마음이 확 풀릴 만큼 아주 편안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다.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전효숙 과동’과 여·야의

12선석 규모로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목포신외항이 광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등을 동남아와 유럽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떠올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장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무안공항을 화물 중심 공항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활주로 확장 부지 매입비 400억원의 지원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약속이다.

오는 2008년 개장 예정인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천800m. 그러나 이 규모는 여객기를 중심으로 하는 공항 수준이어서 화물 수송에 필요한 B747 등 대형 항공기 이착륙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따라서 대형 화물 항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3천200m까지 확장해야 하고, 여기에 드는 400억원의 확보가 우선과제로 떠올랐다. 노 대통령은 서삼석 무안군수가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자 이 사업이 관련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공세에 극도로 위축된 노 대통령이 호남에서 정치적 위안을 받고 자신감을 되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노 대통령은 또 김대중 정권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며 “김 전 대통령이 기업·공공·노동·금융 4대 부문 개혁을 했다면, 이 제도적 혁신 위에서 질적 혁신을 더 쌓아가는 것이 참여정부의 전략”이라며 정권의 연속성을 부각시켰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與 분열 가속화

당·청 “마이 웨이”…친·반노 분당 가시권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포기 발언을 계기로 당·청간 결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내 통합신당 추진파와 친노(親盧) 그룹 양쪽에서 분당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내 분화 조짐은 고건 전 총리와 민주당 등 여당 밖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정치권 새판짜기 논의가 급류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당·청은 날 선 간접을 드러냈다. 우선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우리당 비대위원장들이 심야 회의를 통해 재차 노 대통령에게 ‘정치에서 손을 뗄 국정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대통령은 정치에 전념한 일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병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빛장을 거론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여기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민심을 북극성으로 삼고 오직 민심에 복종하는 정치를 약속드린다”고 밝히며 더 이상 청와대를 의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당·청간 날선 대립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분당론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신당과 의원들은 “일부 급진 세력과 함께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친노 그룹을 겨냥했다.

희망 21 대표를 맡으며 통합신당을

주장하고 있는 양형일 의원은 “우리 당 의원 139명이 다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된다”며 “정책적, 이념적 차이가 분명했던 분들은 갈라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사실상 분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정치실천연대 대표로 친노 그룹으로 분류되는 김형주 의원은 “여지로 같은 당에 앉아서 서로 쟁执하기보다는 원만한 냉각기를 갖거나 합리적 동의에 의해 결별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당·청간의 결별은 물론 여당의 분당도 사실상 가능화됐으며 이제 시기 문제만 남은 상태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분당의 시기로는 정기국회 폐회 직후에 논의가 시작돼 내년 2월 전당대회 이전에 결정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이 유통지면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계개편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해 대선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종립내각 구성은 촉구하며 여권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계개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화영 의원 “하야 까지 고민”

윤태영 대변인 “하야 의지 없어”

盧대통령 ‘임기 발언’ 논란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발언’과 관련,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하야(下野) 수준까지 논의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통령의 고민의 강도가 그만 큼 깊다는 것이고, 참모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수위조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같이 밝힌 뒤 “노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해 ‘하야’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어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에도 하야를 검토한 뒤 양스가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이 ‘하야’ 표현을 겸

토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말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말린 것은 아니다”며 “전체적인 내용은 맞는데 표현이나 전달의 형식은 다른 것 같다”며 “하야”라는 직설적인 표현이 거론됐다거나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만류했다는 설은 부인했다.

하지만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하야 가능성에 대해 “어제 발언은 임기를 다 못채우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야를) 하시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은 ‘No’(없다)라고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위기가 닥쳤는가? 목숨걸고 혁신하자

실패를 두려워하는 칼빈ian 혁신론으로 무상화라!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모순발전법)

불가능은 없다. 도전하라!

기업체/개인 파워혁신 강연회

문의/선정 (02)501-9407, 3046